

基督教와 小說文學

韓承玉*

- | | |
|---------------------------|---------|
| I. 서론 | 5. 심훈 |
| II. 현대소설의 기독교 수용 양상과 전개과정 | 6. 김동리 |
| 1. 이광수 | 7. 황순원 |
| 2. 김동인 | III. 결론 |
| 3. 전영택 | 참고문헌 |
| 4. 염상섭 | |

I. 서론

기독교가 이 땅에 전파된지 천주교가 200년, 개신교가 100년이 넘지만 전개 과정에서는 무수한 고난과 역경이 중첩되었고, 수많은 사람이 사회로 순교한 피비린내 나는 과정을 겪어야 했다. 기독교는 그만큼 동양적인 유불선 삼교의 정신적 토양에 이질적 요소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며, 지금까지도 기독교의 토착화 문제가 거론되는 이유도 이같은 사상적 특성 때문이라 생각된다.

기독교는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 사상을 기초로 하면서 이조시대에는 절대 군주의 비인격적 지배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역할을 하였고, 일제가 강점을 시작한 1900년 초에는 서구 개화사상의 침병으로 이 땅의 미개함을 깨우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개화가 곧 기독교 사상의 정수로 통하게 된 것도 기독교가 서구 문명을 등에 업고 의술과 신식교육의 실질적 구제 사업으로 침투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일제에 강점당한 것이 서구 문명의 섭취가 늦었음에 기인한 것이란 인식에 공감대가 형성된 당대의 지식인들은 서구 유학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으며 당연히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자격 요건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었다.

그러나 개화 사상으로서의 기독교와 사상적인 면에서의 완숙, 더더구나 그것이 문학으로

* 人文大學, 國文科 副教授

육화되는 것과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상의 계몽은 한두명의 선각자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그것이 만중에 뿌리내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려면 그만큼 많은 시행착오와 토착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문학에서 기독교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식적인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문화 전반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것이다. 우리 나라 현대문학에서 소설보다도 시에서 기독교 문학이 비교적 일찍 성공을 거둔 것도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라는 근본적인 이유와 더 나아가서는 김병익의 지적대로 시는 절대적 감성을 표현하고 소설은 구체적 세계관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차이에 기인한 결과일 것이다.¹⁾ 또한 아무리 훌륭한 사상이나 종교적인 이념일지라도 그것을 문학화할 수 있는 기교가 밑바침되지 못하면 불가능하거나 미숙할 수밖에 없다.²⁾ 개화 가사나 신소설에 기독교 수용 양상이 여러 편 보이지만 그야말로 자구적인 피상적 수용에 불과하였음도 이의 구체적인 한 예증이라 하겠다.

그렇다고 현대소설의 효시인 <무정>에서도 그것이 완숙한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은 아니다. <무정>의 기독교 수용 양상은 신소설의 그것보다는 진전된 것이 사실이지만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 또한 부인 못할 사실이다.

이것은 어떤 이질적인 종교적 사상이 문학에 녹아져 흐르려면 작가 개인의 역량도 문제지만 그보다도 우선한 문화 전반에 사상이 자연스럽게 생활화되어 그것이 이질적인 요소로 인식되지 않고 무형화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당연한 이치 때문일 것이다.

기독교 전래 200여년이라면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도 더한 샤마니즘이나 불교, 유교의 전통이 뿌리깊게 우리의 사상과 정서를 지배하고 있어 기독교의 이질 문화를 용해시키고 그런 와중에서 기독교가 문화적 가치로 살아남는다는 것은 지난한 일이었을 것이다.

한국 현대소설의 기독교 수용 양상과 전개 과정을 살펴 보아도 이 점은 다시 한번 구체화된다.

현대문학기에 이광수와 김동인의 선구자적 공적을 인정하면서도 기독교의 수용과 그 심도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예라든지, 목사이면서도 초기에는 적극적인 기독교 사상의 표출을 오히려 자제했고 후기에는 기독교의 세속화에 신랄한 비판을 가한 전영택의 예라든지, 기독교를 샤마니즘화시켜 수용한 김동리의 경우 등이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예라 하겠다.

그러면서도 이광수를 필두로 하여 시기별로 점검하면 식민지시대 소설들이 대체적으로 부정적 시각에서 기독교를 수용한데 비해 최근에 들어서는 비로소 개념화된 소재주의적 수용에

1) 金炳翼, <韓國小說과 韓國基督教>, 《현대문학과 기독교》, 金柱演편, (文學과 知性社, 1984)p.66

2) 최중수, 《문학과 종교의 대화》(성광문화사, 1987), p.50

선 벗어나 우리의 일상 삶의 일부로 육화된 기독교적 소설이라 평할 수 있는 작품이 나온 것은 반가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곧 기독교가 이제는 일반 대중에게 일반화되어 문화적인 기층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표지라 하겠다.

II. 현대소설의 기독교 수용양상과 전개과정

1. 이광수

이광수는 신문학의 선봉자답게 사상적으로도 기존의 유가전통을 근본에서부터 부정하고 나온 시대의 반역아였다. 유가전통을 부정한 근거는 서구 문명, 문화를 배경으로 한 것이었으며,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서구 개화문명의 대명사는 기독교였다. 당연히 그의 작품에는 기독교적 사상이 수용되어 주요한 가치 항목으로 작품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이광수의 기독교적 영향관계를 최초로 천착한 백철이 이광수의 기독교적 영향관계를 긍정적 입장에서 살핀 것도 이광수의 초기작을 점검하는데 기독교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백철은 <한국의 현대소설에 미친 기독교의 영향>³⁾, <춘원문학과 기독교>⁴⁾, <기독교와 한국 현대소설>⁵⁾ 등을 통해 기독교가 현대소설에 미친 영향을 점검하면서 그 절반 이상을 춘원에게 할애하고 있다. 물론 관점도 긍정적임이 사실이다. 이 긍정적인 관점은 전대웅의 <춘원문학의 주제>⁶⁾나 김태준의 <춘원문예에 끼친 기독교의 영향>⁷⁾도 쉼 없이 같이 한다. 춘원에 대해 많은 논문을 발표한 김영덕도⁸⁾ <정>의 계발을 중심으로 춘원을 긍정적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이 <정>의 관점은 기독교 문학에 상당한 천착을 보인 조신권⁹⁾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들 소론은 대부분 춘원의 사상 형성 과정에 중점을 두어 희생적 사랑이 작품에 투영된 면모를 주로 살핀 것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면서 이광수의 기독교 영향관계를 살핀 것은 대부분 부정적임이 드러난다. 김병익은 <한국 소설과 한국 기독교>¹⁰⁾에서 <무정>에 등장하는 김장로의 이미지를

3) 白 鐵, <韓國現代小說에 미친 基督教의 影響>, 중대어문논집 1959

4) 白 鐵, <春園文學과 基督教>, <기독교사상> 1964.3

5) 白 鐵, <기독교와 한국의 현대소설>, <동서문화> 창간호 계명대 동서문화연구소, 1967

6) 田大雄, <春園文學의 主題>, <기독교사상> 1967.6

7) 金泰俊, <春園文學에 끼친 基督教의 影響>, 明大論文集 제 3집, 1970

8) 金永德, <春園의 情과 基督教 思想과의 關係 研究>,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20집, 이화여대 1972

9) 趙神權, <韓國近代文學과 基督教>, <연세춘추>, 연대출판부 1973.

10) 金炳翼, 전계 논문 p.65.

예로 들면서 기독교 신자로서의 그것이라기 보다 개화인으로서의 표상으로 보았는데, 이는 이형식을 기독교인이면서도 “기독교를 단지 개화의 걸치레로 걸치고 있다”¹¹⁾는 지적과 같은 시각이라 하겠다. 기독교 문학에 집중적인 조명을 해 온 바 있는 이인복은 부정적이면서도 조심스럽게 그 장점도 인정하였다. 이광수의 기독교 사상을 “불교적 기독교 사상”이라 정의하면서 이광수의 태도를 그가 “작가로서 입신하여 저술활동을 하는 동안 기독교는 항상 비교 종교학 또는 비교 사상론적 견지에서 수용”¹²⁾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교수는 이러한 태도가 후대인들에게 기독교를 여유를 가지고 바라보게 하였다는 점에서 유익한 것이 되었다고 덧붙인다. 춘원은 기독교와 평생을 함께 살면서도 기독교 속으로 빠져들지 않고 경외로운 대상으로 기독교를 관찰하면서 예찬하는 구도자의 자세를 잃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관점은 기독교적 입장에 기준을 두고 애정을 가지고 볼 때 나온 결론이지 실제로 그의 작품을 분석해 보면 기독교를, 아니 분명히 말한다면 기독교 보다도 기독교인들의 비기독교적인 행태를 야유하거나 비꼬면서 오히려 나중에는 범종교적 그의 사상을 전개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기독교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무정>의 경우만 해도 주인공 이형식은 교인이면서도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해있는 속물 근성의 교인들을 매우 신랄한 어조로 비난한다. 이 비난은 자신의 돈 없음과 배경 없음에 대한 고아인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이 역으로 표출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가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선형의 집안, 곧 김장로에게도 같은 투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매우 반어적이다. 김장로가 돈과 가문을 이용하여 속물처럼 장로라는 직책을 벼슬의 한 자리로 생각하여 차지하고 축첩을 하고 증권과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고 부자로 호강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해 하는 것은 <무정>에서 김장로가 기독교인으로서의 대표적인 인물임을 감안할 때 시사하는 바 크다 하겠다.

이광수가 돈많은 부자에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좌파 기독교인이었던 톨스토이의 사상에서 영향받은 것이 사실이지만¹³⁾ 이형식에게 조금의 손해도 끼치지 않았고 오히려 고아인 형식에게 딸과 유학비용까지 대주는 후한 은인 역할을 하는 장인을 비난조로 말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약혼이 성립되기 전의 일이라는 하지만 그의 기독교인에 대한 당시의 예민한 거부반응을 읽을 수 있다. 이광수가 혐오한 것은 당대 한국의 개화지식인의 기독교 수용양태의 변질과 세속화였지 그 본질에서의 거부반응은 아니란 점이 역으로 도출된다.

그러면서도 주인공 이형식이 보여주는 행위양식은 기독교인의 그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과거 은인인 박진사의 딸 영채를 대하는 태도에서는 그것이 남녀의 애정의 문제이기에 분명히 드러

11) 李商燮, <신문학 초창기의 기독교> (金柱演편, 전계서) p.31.

12) 李仁福, 《韓國文學과 基督教 思想》(又新社, 1987), pp.27~38.

13) 李商燮, 전계 논문, p.32.

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위기에 처할 때의 행동이나 선형과의 약혼 등에서 어떠한 기독교적인 사상 배경이나 행동 양식도 발견해 내기 힘들다. 오히려 이형식은 영체를 찾으러 평양에 갔다와서 학생들에게 기생을 찾으러 다녔다고 하여 지탄의 대상이 되자 그는 하숙집에 들어와 ‘중’이 되겠다고 엉뚱한 소리를 한 것도 그의 속과 겉이 어떻게 이율배반적으로 다르고 위선적인가를 꿰뚫어 볼 수 있게 해주는 증표다. 기독교는 단지 그에게는 개화의 걸치레와 문명의 외피를 장식하는 비본질적인 것일 뿐 그의 내면에는 항상 동양적인 불교적 인생관이 은연중에 뿌리박혀 있음이 간파된다. 이 점은 그가 후기에 불교에 심취하여 기독교와는 절연하게 되는 사상적 변모 추이를 보아서도 알 수 있다. <재생>에서 순영을 통해 기독교적인 인간상을 조형하려는 한 의도는 엿보이나 이때의 기독교도 자기 희생을 오로지 하는 것으로만 규정되었을 뿐 더 큰 신의 문제나 원죄와 구원의 문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생>에서 순영이 애육과 타락한 인물과 그 세력들에 의해 처녀성이 황폐화되어¹⁴⁾ 결국 업보로 소경 딸을 낳고 금강산에서 소(沼)에 빠져 자살하는 것도 크게 보아서는 죄와 그에 따른 벌이라는 점에서 기독교적 모티브라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구원의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배제되어 있고 인과응보의 결말로 처리되어 오히려 기독교보다는 불교적인 사건 전개에 더 가깝거나 아니면 우리의 권선징악적 고소설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봉구의 경우 순영을 백운희의 첩으로 빼앗긴 복수를 위해 돈을 벌러 미두 취인점의 서기로 취직하는 우를 범하였다가 농촌으로 돌아가 동포를 위해 희생할 각오로 끝을 맺는 것도 비록 그가 농촌으로 돌아갈 때 하느님께 기도를 바치고 돌아간다고는 하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편의적인 발상이지 봉구의 내면세계를 지배하는 종교적 힘에 의한 결과는 아니라 생각된다. 이러한 자기 희생적 태도의 기독교적 연관성은 <흙>에서도 승을 통해 발견할 수 있으나 이때도 승의 살여울 회귀는 어디까지나 현실에 염증을 느끼고 정선과의 마찰에서 빚어진 결과일 뿐이지 기독교적 윤리관의 실천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라 생각된다.

정선의 갑진과 부정한 사실을 알고 예수의 용서하라는 말을 떠올리고 정선을 살여울로 받아들이나 이때에도 그것이 편의적 발상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오히려 그에게는 시혜적인 박애사상이 골수사상이고 기독교적 윤리관은 때에 따라 튀어 나오는 방어기제일 뿐이다. 이 박애사상은 시혜적 농촌계몽이라는 민족주의적 사랑과 연계되어 당시의 브나로드 운동과 결부되어 호응을 얻은 것이지 그것이 기독교적 발상이나 그의 실천으로 공감을 얻은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이 점은 <사랑>에서 순옥이가 보이는 안빈과 허영에 대한 태도에서도 확인된다. 순옥이가 정신은 안빈에게 육체는 극도로 혐오하는 허영에게 바치는 것에서도 이광수의 사상적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자료가 된다. 시혜적 사랑이 주제가 된 이 작품은 허영과 같은 ‘無明’의 인물에 대한 구제의식

14) 쿠르트 호호프(한승홍역), 《기독교 문학이란 무엇인가?》 두란노서원, 1988, p.45.

이 질게 깔려 있을 뿐이지 그것이 기독교적 죄의 구원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오히려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에 가깝다면 가깝다 할 수 있다. 이광수 개인사적으로 보아서도 이 시기는 그가 불교에 귀의한 후다. <사랑>은 불교를 정면으로 내세우지 않았지만 박애사상과 시혜적 배품의 자기 희생정신이 불교를 토대로 범종교적으로 투영된 작품이라 볼 수 있다. 이광수는 기독교를 신문학 초기에 받아들여 그것에서 기성 문화를 거역할 힘을 얻고 용감하게 유교문화를 거부하였으나 끝끝내 기독교에 몰입하지 못하고 불교적 사상에 귀의하여 안심입명하는 사상적인 궤적을 그렸음이 그의 전기적 사실과 작품의 변모 과정에서 읽혀지는 것은 매우 흥미 있는 일이다.

2. 김동인

김동인은 철저한 반기독교적인 작품이자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야유한 <명문>을 발표하여 그가 개신교에 얼마나 혐오감을 느끼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지만, 그의 자전적 내력을 일별하면 그만큼 기독교와 깊은 혈연관계를 가진 작가도 드물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김동인은 우리 나라에서 개신교의 메카라 할 수 있는 서부지방의 심장부 평양에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 김대윤(金大潤)은 일찌기 기독교에 입교하여 평양 진석동 교회의 장로였고 그의 모친 역시 교인이었다. 김동인은 유아세례를 받은 몸이다. 그의 이복형 동원도 장로였으며, 동인이 다닌 학교도 대부분 기독교계 학교였다. 송덕소학교나 송실중학교 그리고 일본에 유학한 명치학원도 모두 밋선계 학교였다. 그리고 그의 창조 동인인 주요한, 전영택 등은 목사의 아들이거나 나중에 목사가 된 사람들이었다.

이런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동인이 기독교에 정면으로 저항한 것은 매우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이광수의 경우와도 일맥상통하는 점이지만 개화기 선각자라는 자부심과 김동인 특유의 오만함과 곱힐줄 모르는 자존심,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한국 개신교의 세속화와 물질주의로 빠지는데 대한 반작용이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동인이 보아 온 기독교도들 특히 자기 집안의 기독교 신앙 태도에서 혐오감을 느끼고 본질적 기독교 신앙에 대한 열망이 역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동인은 문학의 출발부터 반기독교적으로 순수 예술적인 탐미주의나 자연주의 계열로 작품을 창작해나간 것도 이런 역설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짙다. <배따라기>에서 진시황을 찬양하며 현세의 유포피아를 꿈꾸는 것이라든지, <감자>에서 복녀를 환경에 의해 타락하게 만들어 종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들은 그가 신에 저항하며 그것으로서 인간의 본성을 찾으려한, 곧 선의 문제보다는 악과 향락의 문제에 더 집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인복이 김동인의 일체의 기존의 것을 거부하는 자세로 모든 것에 도전적인 태도를 취한 것을 하

느님께 대한 항거로 해석한 것도¹⁵⁾ 이와 같은 맥락에서일 것이다. 김동인의 전체 작품 경향과 변모 과정을 기독교적 입장에서 파악하려 시도한 '이인복의 관점이 설득력있게 들리는 것도 동인이 의도적으로 반항하였지만 기독교적 성장과정이 잠재적으로 뿌리깊게 그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동인의 이와 같은 점을 작품을 통해 보다 세밀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인이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비꼬고 힐난한 것은¹⁶⁾ 앞서 얘기한대로 <명문>에서 부터다. <명문>에서 김동인은 전주사(田主事)를 주인공으로 하여 어투부터가 빈정거림으로 일관하면서 전주사의 맹신적인 율법주의에 냉소적인 힐난을 멈추지 않는다. '여편내' 이던 아내가 '당신, , '마누라' '그대'로 등급이 오른 것은 물론 전주사가 번 돈을 자선사업에 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이유로 전주사가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진다. 아이러니를 펼쳐보이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한국의 당시 기독교 신자들의 맹목적 신앙에 염증을 느꼈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전주사가 그의 아버지를 개종시키려 하다가 결국 끝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전주사가 믿는 예수와 그의 아버지가 의지하는 인복대감과 씨름을 붙여보라는 데까지 이르러서는 풍자는 절정에 이른다. 전주사의 어머니가 망령이 나자 안락사를 시켜 천당에 가게 하는 장면에서 비뚤어진 기독교 신자의 오도된 신앙이 저지르는 죄악의 끔찍함을 야유하고 폭로하기도 한다.

이렇게 부정으로 일관하던 독선적인 김동인이 1930년에 <信仰으로>를 발표하는 것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은 은희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모든 것을 구하면 주신다는 계명에 충실히 살다가 어린 동생 만수가 죽어갈 때 아무리 간구하여도 끝내 침묵만 하고 동생이 죽게되자 신앙에 회의를 느껴 기독교에서 멀어졌다가, 그 후 결혼하여 사랑하는 아들 필립이 폐렴으로 어린 나이에 죽게되자 그것이 계기가 되어 천당에 간 아들을 위해 다시 신자가 된다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물론 김동인 특유의 야유가 아직 가시지는 않았지만, 김동인의 독설적 비판과 비꼼이 많이 순화되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김동인의 생각의 변화과정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작품이라 하겠다.

이것을 김동인의 개인사적 방황과 타락으로부터의 재기의 몸부림이라 본 이인복의 소론,¹⁷⁾ 즉 김동인의 기독교에 다시 귀의하고 싶은 심정적 깊이를 헤아려 짐작할 수 있다는 추론도 터무니 없는 생각은 아니라고 본다.

김동인은 일생을 반항아의 기질로 살아왔지만 그의 말년의 비운을 생각할 때 그가 본인의

15) 李仁福, <金東仁의 反省意識>, 전계서, p.43.

16) 李商燮, 전계논문, p.35.

17) 李仁福, 전계논문, p.54.

죽음에 임박하여 깨달은 바는 결국 기독교적 구원의 참회가 아니었을까 추론해 보는 것도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겠다. 김동인은 비록 반항아로 일관하였지만 그와 기독교를 떼어놓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독특한 생의 궤적을 살다간 한 비극적인 선각자였음이 또한 부인 못할 사실이라 하겠다.

3. 전영택

우리는 기독교 문학하면 제일 먼저 전영택을 떠올린다. 그것은 그의 문학이 기독교적이라는 이유보다는 그의 직업이 목사였다는 점 때문이라 생각된다. 특히 〈화수분〉은 전영택의 목사 신분을 염두에 두면서 부활의 의미가 내재된 기독교적 인도주의가 투영된 작품으로 평가 되어 왔다. 그러나 그의 문학을 점검하면 의외에도 기독교 문학에 합당한 작품이 매우 영성하다는 현실에 접하게 된다. 비록 그는 기독교적 소재를 많이 취급하여 작품을 창작하였지만 그 정신과 사상이 녹아져 흐른 육화된 기독교 문학은 거의 없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전영택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전영택은 일생동안 50여편을 쓴 과작의 작가이지만 초기에 기독교적 색채가 거의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작품이 문학사에서 호평을 받고, 후기의 계몽성을 띤 기독교적 소재 문학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도 기독교 문학의 어려움을 실감하게 된다.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의 자전적 편력을 일별해 보면 그에 대한 해답은 저절로 나온다.

전영택은 김동인과 같은 창조 동인이었지만 그의 집안은 전통적인 기독교 가정이 아니었다. 그의 선친은 일찌기 보동학교(普東學校)를 세울 정도로 개화 선각자였지만 기독교적 영향이나 그에 침윤되지 않았던 인물이다. 전영택도 어려서 소년시절에는 한학으로 소양을 쌓았고, 문학적 감수성도 이를 통해 배양한 것을 그의 자전적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¹⁸⁾ 전영택이 기독교에 접한 것은 대성학교를 입학하여 도산 안창호의 사상을 접하면서 부터다.

그 후 아버지를 여의고 그의 작은 형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전영택도 본격적인 교인이 된다. 그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가 일본 유학 때 편입한 청산학원 신학부에 입학하고 나서부터이다. 그것이 1918년이니 창조 동인으로 들어갈 임세이다. 신학부에 입학한 그해에 창조 동인이 된 전영택은 여기서 주요한이나 김동인 등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그러면서도 반항아적 기질로 기독교를 거부하는 문학 청년들을 만나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되었고, 이것이 그의 문학세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서 그는 기독교 보다는 순수 문학에 더 가치를 두어 문학 창작에 열을 올렸을 것이 분명

18) 田榮澤, 〈나의 文學自叙傳〉, 〈자유문학〉 1965.5

하다. 그의 초기작에서 비교적 기독교적인 색채나 냄새를 맡을 수 없는 것도 이런 영향이 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는 이때 문학과 기독교적 신앙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겪는다. 전영택은 문학과 사목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1921년에 신학부에 복교함으로 해서 일단 사목의 길을 택하기로 결심을 굳힌다. 1923년에 신학부를 졸업하고 서울 감리교 신학교 교수를 역임, 1927년에는 아현교회 목사가 됨으로 해서 본격적인 사목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화수분〉은 늘봄이 신학부를 졸업하고 신학교 교수가 되었을 무렵의 작품이다. 그러면 서도 직접적인 기독교 사상이 표백되지 않은 것을 보면 이때까지도 늘봄의 창조동인으로서의 순문학적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려는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수분〉에서 가난의 문제를 다룬 것은 당시의 신경향파 문학의 일반적 특성과 궤를 같이하며, 죽음의 문제가 마지막 대단원에서 제기되는 것도 20년대 전반기 문학적 경향과 일치한다. 다만 그의 죽음의 의미가 김동인의 그것처럼 비정하다거나 최서해처럼 반항적이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어린 생명을 살려 놓음으로 해서 그 순진무구한 어린 생명에 새 희망을 건다는 점에서 부활의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전영택만의 독특한 세계관이 표백된 것으로 해석되는 소이연도 이에 있다. 만일 전영택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지니지 않고 있었다면 그는 아마도 김동인류의 자연주의적 수법을 썼거나 아니면 신경향파나 프로문학적 기질을 나타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전영택의 〈화수분〉은 당대의 우리 문학적 분위기에서는 매우 이질적인 경향의 작품에 해당한다. 비록 직접적 기독교 문학의 본색을 노출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녹아져 스며있어 그의 후기 기독교적 색채가 노골적으로 표출된 것보다 호평을 받는 것도 그의 이런 문학적 때문이라 생각된다.

전영택은 그 후 목회활동을 열심히 하며 문학인으로서 보다는 목회자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다한다. 여기서 문학보다 목사로서의 그를 우선적으로 평가하려는 것은 그의 외면에 나타난 현상일지 모르겠으나 그는 왕성한 작품 활동보다는 목회 활동을 하며 그에서 파생되는 제문제를 문학을 여기로 여겼던 이조시대의 문사들 처럼 과작으로 뜨문뜨문 작품을 발표하였기 때문에 내려보는 단정일 뿐이다. 그의 청년시절의 문학적 열정으로 미루어 보아서는 아마도 그는 내적으로 문학과 기독교적 신앙과의 양립에 누구보다도 많은 고뇌를 바쳤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이것이 바람직한 형상으로 노출되지 않았음은 유감이다.

전영택의 이러한 고민은 그의 작품 경향의 변모나 작품 소재의 내용적인 점점을 통해서도 규지된다. 30년대에 들어와서 그의 임종까지의 대부분의 작품은 기독교적 소재가 주류를 이루게 되는데 그 기독교적 사상이나 윤리가 너무 노골적으로 표출된다는 점이 문학적 입장에서 보면 약점이 되는 것이다.

1938년 〈삼천리〉에 발표한 〈여자도 사람인가〉에서는 가난하여 변변히 먹지도 못하면서 남의 샅빨래를 하면서도 찬송가를 부르는 독실한 신자의 모습을 크로즈업시키며, 1939년작

인 〈남매〉에서는 주인공이 현덕이라는 동생을 육친인 자신 보다도 더 열성껏 간호하는 수녀의 모습을 통해 신앙인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기도 하며, 같은 해에 〈문장〉지에 발표한 〈첫미움〉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다가 죽은 M을 생각하며 한 사람만을 위한 사랑이 아닌 만인을 위한 헌신적 사랑을 결심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기도 한다. 모두 기독교적 신앙과 사랑, 희생과 관련된 주제이거나 내용들이다. 이러한 경향은 그 이후에도 변함없이 지속된다. 다만 어떤 때에는 신앙이 세속에 물들어 타락해가거나 변질되는 것을 비판적 시각으로 형상화할 때도 있다는 점이 특기할만 하다. 1960년에 발표한 〈크리스마스 전야의 풍경〉은 군목으로 있다가 갓 제대한 주인공 백인수의 눈에 비친 세속적인 크리스마스의 흥청대는 향락 일변도의 타락한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한다. 1964년작인 〈생일파티〉에서도 교회 목사인 아버지가 강단에서는 이웃 사랑을 외쳤으면서도 이웃집의 초상은 외면한 채 딸의 생일잔치를 호화롭게 차려주는 모순되고 위선적인 행위를 딸인 경희를 통해 비판해 보여주는 내용이다.

전영택은 이외에도 신앙의 역경을 그린 작품을 많이 발표하였다. 〈크리스마스 새벽〉에서처럼 장로의 아들이며 독립운동에도 직접 참여했던 주인공 강열이 공산당 치하에서 혹독한 고초를 겪고나서 신앙심이 돈독한 부인 홍마리아 곁으로 돌아와 신앙 안에서 화평한 가정을 이룬다는 신앙 체험의 과정을 그린 것도 있고, 〈한 마리의 양〉에서처럼 미모와 부를 지닌 메리라는 여주인공이 결혼에 실패하고 향락에 빠져 퇴폐에 물들다가 평신도인 요한 아저씨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새사람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한다. 〈집〉에서도 주인공 황달보가 자신의 방탕으로 아내가 추위에 기거할 집도 없이 주인집에서 쫓겨나게 되자 그것을 비판하여 자살하게 되자 그를 계기로 누우쳐 새사람이 된다는 신앙적 속죄과정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전영택의 후반기 작품은 주로 기독교적 신앙체험을 작품을 통해 계몽적으로 보여주거나 사회의 비뚤어져가는 종교행태를 비판적으로 형상화한 것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기독교적 내용이나 소재가 아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그것의 문학적 형상화다. 너무 주제가 표면화되었을 때는 문학성이 그만큼 후퇴하거나 약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전영택의 실패는 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4. 염상섭

기독교 문학을 거론하는 자리에 염상섭이 끼어드는 것은 그 자체가 의외일지도 모른다. 염상섭은 투철한 기독교인도 아니었고 기독교적 경향의 작품을 발표한 작가도 아니다. 염상섭을 여기서 거론하는 이유는 김병익이 지적한 것처럼, 식민지시대의 “당대의 부조리를 극복하는 이념으로 채택한 기독교의 현실적 허구와 패배를 묘사한 염상섭 특유의 사실주의적 세계관”¹⁹⁾을 점검하는 것이 기독교와 한국 현대 소설의 관계를 더욱 명료하게 파악하는데 많은

19) 金炳翼, 전개 논문, p.68.

신사점을 제공한다는 점 때문이다.

염상섭은 <만세전>에서 뚜렷한 종교의식을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현실로 시각을 확대하는 동시에 전통적 인습에 부정적 반응을 나타낸 바 있다. 염상섭은 그 후로 그의 장편소설에서 기독교인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은연중에 견지해 왔다. 그러나 1930년 들어와서 집필된 <삼대>처럼 노골적으로 기독교인을 중심 인물로 하여 당시의 사회상과 시대정신을 해부한 예는 없었다.

염상섭은 <삼대>에 와서 상훈을 개화세대로 또한 위선적인 기독교인으로 설정함으로써 이광수가 1910년대에 개화의 걸치레로 받아들인 기독교가 어떻게 1930년대 그 허구성을 드러내며 타락하고 부패하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무정>이나 <재생> 등에서는 지역적인 기독교인의 양상이 간간히 제시되었을 뿐이고 김동인의 <명분>에서는 극렬한 풍자가 주를 이루었고 기독교 문학의 진수라 일컫는 전영택도 실제로는 조심스럽게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기독교적 사상을 내면화시키려 한 작가였다.

우리 소설사에서 실제로 기독교인을 소설의 정면에 배치하여 당대를 해부하고 세속화된 기독교인을 심판대에 올려 놓는 것은 <삼대>부터다.²⁰⁾

<삼대>에서는 덕기의 아버지이자 개화주의자이면서 썩어가는 세대인 상훈뿐 아니라 목사의 아들인 병화를 또 다른 이념의 축에 배치함으로써 해서 한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현실에 대응해야 할지를 잘 묵시하였다.

김병익은 상훈에게만 시각을 고정시켜 “기독교가 지식층에게 정치적으로 좌절의 얼터네이티브로” 이 땅에 침투되었다고 했으나, 실에 있어서는 진정한 기독교도의 모습을 염상섭은 병화를 통해서 제시하려 했다고 해석된다.

상훈이 하는 행위는 겉으로는 독실한 신자이지만 이면에는 위선의 탈을 쓰고 경애를 첩으로 만들고 매당집을 드나들면서 향락에 탐닉하고 돈을 얻기 위해 범죄도 서슴치 않는 부정적 인물이지만 그와 대칭에 서는 병화는 그의 아버지의 기독교 신앙, 이 신앙은 기복 신앙이거나 이기주의적 배금과 세속에 물든 의식적인 계명 절대 신봉주의일 것인데 이 잘못된 신앙인의 믿음을 거부하고 본래의 기독교 신앙인으로서의 몫을 다하기 위해 집을 뛰쳐 나와 맑스보이가 된 것이다. 병화가 필순의 집에 기거하는 것은 그의 식객이 되는 모순을 범하지만 그 동기만큼은 순수하다. 필순아버지의 이념에 동조하면서 공장노동자인 필순의 지주역할을 한다는 본래의 의도를 주시한다면 병화의 역할이나 그를 통한 이념의 제시가 어떻게 염상섭의 기독교관과 통하는지를 통찰하게 만든다.

<삼대>에서 염상섭이 나타내고자 했던 기독교는 상훈을 통해 개화 걸치레로 위장했던 사

20) 金炳翼, 상동

이비 기독교인의 면모를 들추어내서 미래적 전망을 제시하려한 점과 그 반대편에서 민족적 주체성을 회복하는데 기독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그 실천방안은 무엇인가를 병화를 통해 나타내려 한 것이라 해석된다. 사회가 부조리한 상태에 있을 때, 특히 식민지화해 있을 때 기독교인이 자신의 안일만을 위해서 위선적 기복신앙이나 이기주의로 타락하는 것이 얼마나 허위인가를 깨우치고 또한 사회로 눈을 돌렸을 때는 그것이 용이하게 사회주의 사상과 연계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이미 1930 년대에 초에 우리에게 제시한 탁월한 시각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 나아가서는 그를 육화하여 보여주어야 하는 우리 소설문학의 진로까지도 제시한 점에서 상찬할만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5. 심 훈

심훈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기록은 아무 곳에도 없다. 다만 그의 둘째 형 명섭(明燮)이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과 심훈이 중국 땅에 망명하였을 당시 적을 두었던 대학이 杭州의 元江大學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그가 기독교에 문외한은 아니었음을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도 심훈은 소설의 주인공을 기독교인으로 설정하고 또 그 인물을 긍정적으로 부조해 나갔다는 점이 특기할만한 사실이다.

지금까지 이광수, 김동인, 염상섭이 대부분 부정적인 시각의 기독교관을 작품에 투영시켰고, 그 인물들도 적극적인 신앙인이 아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1935년 작인 <상록수>는 기독교 소설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빠질 수 없는 작품이라 하겠다.

<상록수>에서 여주인공 영신을 크리스찬으로 설정하여 청석골에 내려가 교회를 중심으로 농촌 계몽사업을 펼치게 하는 것은 그것이 브나로드 운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소설이기는 하지만 근원을 기독교의 희생정신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지식인의 귀농을 다룬 이광수의 <흙>이나 민촌의 <고향>에서 어떠한 적극적인 기독교적 인간상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을 염두에 둘 때, <상록수>에서 실제적인 주인공인 영신을 기독교인으로, 그것도 작품의 결미 부분에서 안타깝게 희생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많다 하겠다.

영신의 상대역인 동혁은 비록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자세로 영신의 사업을 지켜보고 후원해주는 것을 보아서는 그가 지니고 있는 기독교관이 결코 부정적이지만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동혁은 영신이 지적한대로 맑스주의자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가 한곡리로 내려가 활동한 것은 결코 신앙인으로서의 그것이 아니다. 동혁이 주도한 것은 사회개혁, 그 중에서도 경제적 모순 구조를 개조하려는 사업이었다.²¹⁾ 이것은 영신이 청석골에서 편 사업 내용

21) 李注衡, <1930年代 韓國長篇小說研究>, 서울大大學院 博士論文, 1983, p.97.

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영신이 청석골에서 펼친 계몽사업은 주로 문명, 문화적인 것들이었다. 정신적 계발에 주력한 것이 사실이다. 동혁과 영신의 성질을 달리한 계몽사업의 성격만 보아도 이들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 출발을 보이고 있는가를 깨닫게 해준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영신과 기독교에 호의적이지만 현실의 기독교인들이 보여주는 물질주의와 세속화에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며 맑스주의적 견지에서 세계를 개혁하려는 동혁의 근원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젊은이가 하나로 묶일 수 있었던 것은 민족에 대한 사랑과 희생, 곧 민족주의적 이념의 공통분모가 시대적 표증으로 묶여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기실 <상록수>에 나오는 영신의 봉사행위는 초인적인 그것이었다.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쓰러져 가면서도 청석골 부인들과 아이들을 위해 자신을 바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기독교적 신앙이 밑받침되어 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인복은 심훈의 <상록수>를 주의깊게 분석하면서 심훈의 기독교에 대한 방외적²²⁾ 비판의식을 추출하였는데 이것은 동혁을 중심으로 파악한 작가의 세계관일 때는 설득력이 있으나 영신의 경우에는 관점을 달리해야 할 점이라 생각된다. 이인복은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 기복 신앙적이고, 피상적인 기독교인상을 제시하였다고 아쉬움을 표했으나 이것은 일견 타당성은 있으나 영신의 전체 행위 양식이나 그의 변모나 최후의 희생 등으로 보아서는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상록수>에서는 긍정적 크리스찬으로서의 당대 사회의 바람직한 교인상을 부조하였다는데 더 큰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

6. 김동리

김동리는 토속적인 작품경향을 지닌 작가로서 샤머니즘에 뿌리 깊이 연계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성장 배경을 살펴 보면 그는 의외로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하였다.

김동리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녔고 밋선계 학교인 계성학교와 경신고보를 나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기독교적 사상에 일찍 접할 수 있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기독교적인 인간상을 작품에 투영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실제 있어서 그의 야심작이라고 스스로 일컫는 <사반의 십자가>를 읽어보면 그의 성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쉽게 감득할 수 있고, 그런 배경이 있기에 그와 같은 작품을 착상하여 완결지을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한다.

김동리의 작품이 기독교 소설을 점검할 때 반드시 거론되는 것은 <사반의 십자가>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보다 널리 알려지기로는 <무녀도>로 표상되는 기독교와 샤머니즘

22) 李仁福, <沈熏의 傍外的 批判意識>, 전계서, p.95

의 대립과 갈등이 문제되고서부터라는 말이 더 적절한 지적일 것이다.

〈무녀도〉에서 결과적으로는 모화나 욕이가 둘다 죽지만 그 땅에 교회가 들어섬으로 해서 기독교세의 확산이 암시되지만 내면에 흐르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기독교의 승리로 규정지을 수 없는 본질적인 그 무엇이 도사리고 있음도 또한 간파할 수 없다.

그것은 한마디로 기독교의 샤머니즘화라 결론내릴 수 있다. 김병익은 “異蹟 모티프”나 “근친상간성의 모티프”를 들어 이를 논증하였고,²³⁾ 이인복은 神靈主義란 말로 이를 대신한 바 있다.²⁴⁾ 기독교의 샤머니즘화란 규정은 〈사반의 십자가〉에 오면 대부분의 평자가 일치된 견해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김동리는 기독교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으면서도 그것을 샤머니즘으로 수용하여 기독교를 이질적인 것으로 변질시켰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현재의 기독교가 기복신앙화하면서 본래의 기독교 정신과는 어긋나며 토착화해나가는 점과 너무나도 유사하다.

〈무녀도〉에서 무당인 모화에 대립되는 세력으로 대두된 기독교 세력인 욕이가 믿는 예수도 부흥회 때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쳐주는 것에서 그 발판을 얻으려 한 점이나 〈사반의 십자가〉에서 예수를 천상의 구원을 상징하는 반신불수의 메시아로 만들고 점성가 하닷에게서 오히려 구원을 기대하는 사반의 지상의 구원에 집착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김동리의 기독교관이 어떤 것인지, 또한 그가 표방한 제 3 휴머니즘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간파할 수 있게 해준다.

김동리가 추구한 것은 이적을 중심으로 교세가 확장되는 기복신앙으로서의 기독교다. 또한 하닷의 점성술의 영검함을 바탕으로 한 샤머니즘적 세계관의 정립이 그가 추구한 소설 세계인 것이다. 하기에 김동리는 기독교적 소재를 소설에 끌어들었으나 그것을 왜곡시켜 샤머니즘화하는데 주력한 작가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7. 황순원

황순원은 일체의 문단정치를 배제하고 오로지 창작에만 몰두한 결벽주의의 초상을 간직한 작가이다.

김동리와는 정반대의 행위 양식을 보여준 작가가기에 우리는 즐겨 두 작가를 비교하곤 한다. 작품 경향에서도 둘은 대조적이다. 김동리는 문단의 일선에서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며 실무적인 문학외적인 문단 활동을 많이 한 작가인 반면, 황순원은 철저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채 창작에만 몰두한 작가다. 소설 이외에는 어떤 부수적인 기록도 남기지 않고 있다. 하기에 그의 신상에 관한 자료는 다른 작가에 비해 거의 전무한 형편이다. 자기의

23) 金炳翼, 전계논문, p.73.

24) 李仁福, 〈金東里的 神靈主義〉, 전계서, p.97.

성장 체험을 기록한 자료도 거의 없다. 그는 오직 작품을 통해서만 자신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이 원칙은 최근까지도 변함없다. 이즈음 수상집 성격의 개인적 심정의 기록물을 내놓긴 했지만 이것도 소설의 연장인 이념의 편린을 기록하는데 지면을 할애하였을 뿐이다. 그를 알기 위해서는 작품을 통해 그의 모든 것을 유추해낼 수 밖에 없다.

황순원의 작품을 읽어보면 제일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은 그의 사상적 변이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특히 종교적 가치관의 탐색이 강하다는 점이다. 황순원은 샤마니즘과 기독교의 사상적 근원을 매우 예민하게 살핀 작가이기도 하다. 김동리도 기독교와 샤마니즘의 율령을 <무녀도>와 <사반의 십자가>에서 문제삼아 결국은 기독교의 샤마니즘화로 규정될 수 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황순원도 샤마니즘에 대한 고뇌가 이에 못지 않음을 그의 장편 소설을 통독하면 쉽게 감득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결론은 김동리와는 정반대의 측면에서 도출된다. 황순원은 샤마니즘을 극히 혐오하며 기독교적 행위 양식의 전범을 제시 하는데 그의 문학적 상상력을 바친다는 점이 특징이다. 여타의 작품에서도 그것은 은연중에 나타나지만 특히 표면적 주제로 이 점이 부각되는 대표적인 작품은 <움직이는 성>이다.

<움직이는 성>에서 샤마니즘적 인간상인 민구와 합리주의적 성격이지만 근원적으로는 유랑민 근성을 지닌 준태와 실천적 크리스찬의 면모를 보여주는 성호를 각각 대비적으로 등장시켜, 어떻게 기독교적 인간상이 진실치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지를 설득력있게 보여주고 있다.

황순원이 <움직이는 성>에서 보여준 세계관은 그러나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결론은 아니라 보여진다. 그가 <일월>에서 본돌영감을 통해 제시한 샤마니즘적 탐색이 밀바침되지 않았다면 이런 결론은 헛된 것이거나 아니면 아무런 감동도 불러 일으킬 수 없는 허구로 전락 되었을지도 모른다. 샤마니즘 뿐만이 아니다. 그에게는 근원적으로 죄의식에 대한 강한 잠재의식이 도사리고 있다.²⁵⁾ 그의 장편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흐름은 죄의식과 구원의 문제다. 이 죄의식은 결코 샤마니즘적 성격은 아니다. 그가 샤마니즘을 천착한 것은 근원적인 죄의식을 철저히 해부하기 위한 수단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 죄의식으로 부터 자유스러워지려는 지난한 몸부림의 일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추구한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이것은 바로 기독교 문학의 본질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독교 문학을 살펴 보면서도 그 부정적 투영의 실상을 확인하였거나, 그의 계몽적 노출에서 발견하는 문학적 결론을 확인하였었다. 이러한 미흡함을 비로소 황순원이 극복해 주는 것이다. 황순원은 의도적인 주제의 표출에서 벗어나 사상 자체가 문학에 녹아져 흘러 육화된 전형적인 기독교 문학 작품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25) 拙稿, <黃順元長篇小說研究—罪意識을 中心으로—>, 崇實語文 제 2집, 1985.2

죄의식의 문제는 <카인의 후에>에서부터 본격적인 문제 의식으로 나타난다. 카인의 성서적 인용부터가 그의 사상적 침윤의 근원을 짐작하게도 하는데, 인간은 원죄적으로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괴로운 질문에 스스로 해답을 얻기 위해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해방 전후사의 혼란기에 한 지식인이 체험했던 고뇌와 종교적 극복의 문제를 그는 내면화시켜 소설로 형상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종교적 문제도 결국 현실의 삶과 항상 함께 한다는 인식일텐데, 그는 <인간점목>과 <나무들 비탈에 서다>에서도 6.25의 동족상잔의 비극을 죄의식과 종교적 구원의 문제로 심화시키고 있다. <나무들 비탈에 서다>에서의 유리와 같이 순수한 젊은이들이 어떻게 자신의 죄도 없이 파멸해가는가를 그려 보여주는가 하면 <인간점목>에서는 자신의 죄의식을 속죄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득력있게 제시한다. <나무들 비탈에 서다>에서 동호가 자살하는 것은 자신의 순수가 더럽혀졌다는 점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며, 현태가 전쟁이 끝나고도 그렇게 방황하는 것은 전쟁중에 죄 없는 여인을 살인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다. 이들이 저지른 죄는 실상 그들의 탓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지도 모른다. 이들이 지은 죄를 속죄하고 구원받는 것은 무엇일까?

황순원이 <일월>에서 본돌영감을 사탄의 상징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본돌영감은 기룡의 살인을 대속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기룡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이 불가능함을 깨닫게 된다. 결국 더 고독해지고 더 최악의 심연에서 괴로와 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줄 뿐이다. <움직이는 성>에서 성호를 통해 보여주는 성직자의 모습은 성호가 이미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음으로 해서 더욱 구원의 약속은 박진감을 얻게되는 것이다. 준태의 유랑민 근성이 감자씨에의 집념을 통해 극복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으로 잠재되면서 지연의 사랑이 창조주의 그것이라는 암시는 성호의 의연한 종교적 자세에서 실천적으로 확인되는 것이다.²⁶⁾

황순원이 보여준 세계는 그가 비록 표면적으로 크리스찬이 아닐지라도 내면적으로는 누구보다도 한국 기독교의 나갈 바를 진실로 고민하고 있으며, 그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개인임을 간파할 수 있게 해준다. 아마도 우리 현대 소설사에서 본격적인 기독교 작가를 꼽으려면 황순원이 제일 앞에 와야 할 것이란 단정은 틀림없는 사실로 인정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26) 金炳翼, 전계논문, p.82.

IV. 결 론

지금까지 현대소설에 투영된 기독교를 점검하면서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기독교 문학이 어떤 형태로 창작되었을까를 살펴보았다.

신문학의 선구적 공로자인 이광수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은 기독교적 기본 윤리관이 『무정』에서는 부정적으로 투영되었다가 그 후로는 범종교적으로 박애적인 사랑이나 희생으로 확산됨을 알 수 있었다.

이광수를 정면으로 부정한 김동인은 소년기적 체험이나 가정환경이 기독교적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극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문학 현상이 그가 기독교적 잠재체험이 역으로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하는 결론에까지 도달하였다.

기독교 작가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늘봄 전영택은 목사의 신분으로서 그가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였고 <창조>시대 이후 후반기로 오면서는 그의 작품이 너무 기독교적 소재를 통한 계몽성 때문에 문학성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염상섭은 비록 기독교인은 아닐지라도 <삼대>를 통해 기독교적 인간상을 정면에서 다룬 작가로 그 의의가 돋보였다. <삼대>에서 타락한 위선적 기독교인상으로 상훈이 제시되었으며 또한 그 반대편에 기독교에 반항한 맑스보이 병화가 설정되어 실천적 기독교인의 모습이 형상화 되고 있었다.

심훈은 <상록수>에서 한편으로는 영신을 통해 희생적 크리스찬의 모습을, 한편으로는 동혁을 통해 맑스주의에 가까운 행동적 개혁주의자를 보여주면서 이들 두 이념형의 인간상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를 모색하고 있었다.

김동리에게 와서는 기독교 문학은 또 다른 분기점을 만나게 됨을 점검할 수 있었다. 김동리는 철저하게 기독교를 동양적인 샤머니즘의 전통으로 토착화시키려고 하고 있었다. 이것은 현금의 우리 교계의 실질적인 현상적 모습이기에 많은 반성점을 동시에 제공하기도 하였다.

우리 문학사에서 참다운 기독교 문학의 전형을 보여준 작가는 황순원이란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는 죄의식을 바탕으로 모든 장편 소설을 전개해 나갔으며, 또한 이에 머물지 않고 구원의 문제를 실질적인 행동하는 양심을 통해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움직이는 성>이었다. 여기서는 샤머니즘에 대한 깊이있는 천착은 물론 한국인의 근원적인 근성까지도 문제 삼으면서 기독교적인 색채를 생경하게 노출시키지 않음으로 하여 기독교 문학의 나갈 바도 함께 제시한 전범으로 평가되었다.